

# “이란 정부, 시위 진압 저격수 동원…거리에 시신 수백구”

당국 통제 속 SNS로 시위 상황 전파…‘시위대 얼굴에 조준사격’ 증언도  
당장 진위 확인은 어려워…관영매체선 “시위대에 살해된 시신들” 주장

이란 당국이 전국에서 벌어지는 대규모 반정부 시위를 진압하려고 시도하면서 최소한 수백 명이 사망한 대규모 유혈사태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구체적 현장 소식 확인은 어려운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이는 지난 8일(이하 현지시간)부터 이란 당국이 인터넷과 국제전화를 차단해버린 텃이다.

일부 활동가들이 현장의 모습을 담은 영상과 사진을 위성통신 ‘스탈링크’로 전달하는 데 가까스로 성공한 경우가 있었으나, 이란 당국이 GPS 신호 교란에 나서면서 그마저도 힘들어졌다.

11일(현지시간)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이란의 28세 여성 기자인 마흐사는 8일 이란 북동부 마슈하드에서 전화를 통해 현장 상황을 설명하고 있던 도중 통화가 끊겨버렸다.

그가 통화 단절 직전에 말한 내용은 “그들(이란 당국)은 시위 군중을 벤과 오토바이를 타고 공격하고 있다. 나는 그들이 속도를 늦추고 사람들의 얼굴을 고의로 조준사격하는 것을 봤다.

많은 사람들이 부상당했다. 거리에는 피가 가득 하다. 엄청난 수의 사망자를 보게 될 것 같아 두렵다”는 것이다.

현지 연결이 끊겨버린 텃에, 서방 매체들은 간헐적으로 전달되며 즉각 진위 확인도 불가능한 소셜미디어 게시물 등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테헤란 시위에 참가했다는 한 사람은 자신을 포함한 시위 참가자들이 몽동으로 얄어맞았다면서, 당국이 군중을 거냥해 살탄 사격을 했고 사망자 수가 “매우 많다”고 9일 전했다.

테헤란의 타지리시 아르고 쇼핑센터 근처에서 열린 시위에 참가한 것으로 보이는 한 남성은 저격수들이 동원돼 시위 참가자들에게 총격을 가하고 있다면서 거리에서 시신 수백구를 봤다고 말했다.

테헤란에서 시위에 참가했다는 또 다른 사람은 “큰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들 중 수천명이 온라인 접속에 성공해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뉴스

를 전할 수 있도록 도와줬다. 우리는 혁명을 위해 일어섰지만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란 당국의 선전과 위협을 담은 관영매체들의 보도 뒤에 숨겨진 ‘행간’이 전달되기도 한다.

9일 낮에 관영매체들은 진정부 시위 모습과 시위가 열리지 않고 평온한 지역의 일상적 모습을 영상으로 보여줬다.

같은 날 소셜 미디어에는 테헤란의 한 병원 복도에 시신이 든 자루로 추정되는 물체들이 놓여 있는 모습이 담긴 사진들이 올라왔다.

10일에는 테헤란의 카리자크 지구에 있는 대형 의약품 창고 건물 바깥에 시신이 든 자루로 추정되는 물체들이 놓여 있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소셜 미디어에 들었다.

사망자 가족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시신의 얼굴을 덮고 있던 뒷걸음을 들어올리는 모습이 영상으로 전해졌으며, 배경에서는 여성들의 통곡 소리가 들렸다.

이란의 관영 매체들은 자루 안에 든 것이 시위 참가자들의 시신이 아니라 시위대에 의해 살해된 이들의 시신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부검 결과 총상이 아니라 찔린 상처가 발견됐다는 주장을 폈다. /연합뉴스



## 정찬열의 포토에세이

“Dokdo Island Belongs to KOREA”

미국 캘리포니아 엘에이 인근 60번 프리웨이 부근에 세워져 있는 ‘독도는 대한민국 땅’이라는 간판이다. 뜻 있는 동포가 주민에게 털어 세운 것이다. 저 정도 크기의 간판을 임대하려면 만만찮은 돈이 들었을 것이다. /사진

외국에 나오면 다들 애국자가 된다. 우리 땅 독도에 대한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오죽 담당했으면 저렇게 간판을 세워 미국인들에게 알리려 했을까. 독도 문제에 대해 어정쩡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미국 정부에 항의하기 위한 목적으로 간판을 세웠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다.

일본이 교과서에서 독도를 자기네 영토라고 주장해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한국정부에 대한 항의표시와 함께, 200만 넘는 재미 동포들에게도 무언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을 터이다. 오가며 이 간판을 보는 동포들, 특히 15세들은 남다른 느낌을 가지게 될 것이다.

일제 치하에서 이곳 동포들이 성금을 모아 독

/정찬열 시인(미국 캘리포니아 거주)

## 메타, 호주 SNS 규제 ‘16세 미만’ 계정 55만개 폐쇄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등을 운영하는 메타가 호주에서 소셜미디어(SNS) 계정 55만여개를 폐쇄했다고 11일(현지시간) 밝혔다.

호주 정부가 지난달부터 16세 미만의 SNS 이용을 차단하는 조치를 취한데 따른 것이다.

블룸버그, AFP 통신 등에 따르면 메타는 이날 블로그 공지를 통해 16세 미만으로 추정되는 사용자들의 인스타 계정 약 33만개, 페이스북 계정 약 17만3천개, 스트리드 계정 약 4만개를 삭제했다고 밝혔다.

메타는 법을 준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

다면서도 호주 정부의 SNS 금지 조치에 대해서는 반대 의사를 거듭 피력했다. 특정 SNS 이용을 금지하면 청소년들이 이를 대체할 다른 SNS로 옮겨갈 뿐 정부가 원하는 청소년 보호 효과를 실질적으로 거두기는 어렵다는 주장이다.

메타는 호주 정부의 금지 조치가 청소년들이 다른 앱으로 이동하게 하는 두더지 잡기식 효과(whack-a-mole effect)만 낼 뿐이라며 앱을 내려 받기 전에 나이를 확인하고 16세 미만은 부모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이 더 낫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 핀란드 항공기 얼고 알프스 눈사태…유럽 폭설·한파 대란

### 라플란드 공항 수천 명 발류

핀란드에 예년보다 강한 한파가 덮치면서 항공편이 결항, 관광객 수천 명의 밤이 묶이는 등 유럽 곳곳에서 혹한으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11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혹한으로 인해 핀란드 북부 라플란드 지역의 키탈래 공항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이 모두 취소됐다.

이날 아침 기온이 영하 37도까지 떨어지는 한파가 이 지역을 덮치면서 항공기 얼음 제거 작업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라고 AP는 전했다.

항공편 취소로 인해 관광객 수천 명의 밤이 묶였다. 키탈래 공항은 스카이를 즐기거나 오로라를 보러 라플란드를 찾는 관광객들이 거치는 관문이다.

12일에도 항공편 취소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핀란드 기상청은 12일 이 지역 기온이 영하 40도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보했다.

북유럽에 위치한 핀란드는 겨울 추위가 혹독한 것으로 유명하지만 올해 한파는 유난히 맹위를 떨치고 있다. 올해 한파와 폭설로 핀란드뿐 아니라 다른 유럽 국가에서도 교통에 차질이 빚어졌다.

독일에서는 지난 9일 폭설로 인해 국영 철도



지난 9일(현지시간) 핀란드 일라스에서 한 사람이 섭씨 영하 33도를 보여주는 디지털 디스플레이 앞을 지나고 있다. /AP=연합뉴스

도이체반디 북부 지역에서의 모든 열차 운행을 중단했다. 이를 뒤인 이날까지 열차 지연과 취소가 이어져 승객들이 불편을 겪었다.

곳곳에서 버스 운행도 중단됐으며 바이에른 주에서는 자동차가 빙판길에 미끄러져 난 사고로 사망자도 발생했다.

강한 바람으로 인해 여객선이 섬에 접근할 수 없게 되면서 니더작센주에서는 북해 연안 여객선 운행이 대부분 중단됐다. 아울러 독일 당국은 서부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전역의 도

로에 결빙이 예보됨에 따라 12일 모든 학교가 휴교하고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프랑스와 영국에서는 지난 9일 강풍과 눈비를 동반한 겨울 폭풍이 몰아쳐 수천명이 정전됐다.

프랑스 알프스에서는 스카이를 타던 남성이 눈사태로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다. 영국 가디언에 따르면 프랑스 알프스의 사부아 지역에 위치한 풀라뉴 스키장은 50대로 추정되는 한 영국인이 11일 스카이를 타다 눈사태로 사망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 실리를 따진다면 가성비 좋은 피닉스 입니다!

- 믿을 수 있는 100% 국내공정
- 신속하고 확실한 A/S
- 합리적인 가격에 고퀄리티 품질



FREE 전국 택배 무료 배송!



## 전 브랜드 할인 판매! 중고 골프채 보상 판매!

최고의 명품 파크골프채  
아스트로



영무SP sports

062) 653-4141

광주 남구 대남대로 252 (백운동 644-33)

www.sunparkgolf.com

